

- ◆ [Focus] 2022년 미국 무역적자, 사상 최대 기록
- ◆ [What's News]
 - (경제·통상) 바이든, 2023년 의회 연두교서 발표
 - (대러제재) 재무부,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 지침 공개
 - (친환경) 에너지부, 탄소포집 기술을 위한 투자 발표
 - (북한동향) UN 안보리, 북한의 암호화폐 공격이 더 활발해졌다 밝혀
- ◆ [Top Headlines]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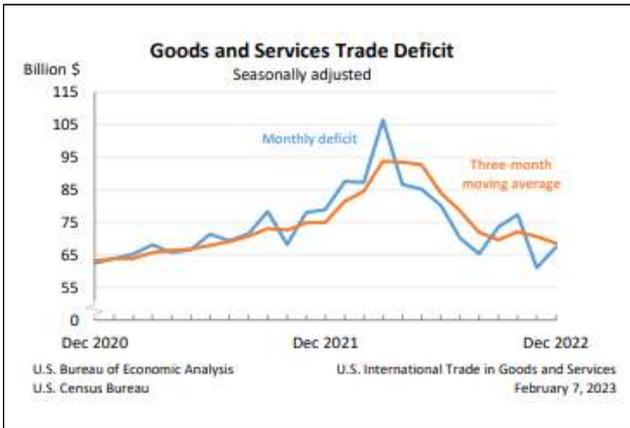
FOCUS

[무역동향] 2022년 미국 무역적자, 사상 최대 기록

1. 2022년 미국 상품·서비스 수출입무역 개요

-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(BEA)은 '22년 미국 대외 무역적자를 9,481억 달러(전년 比 12.2%↑)로 발표(2.7)
 - * 후술 괄호의 변화 값은 전년 比로 고정, 예외는 별도 기술
- 상품 무역적자는 1조 1,918억 달러(1,015억 달러↑)를 기록했으며, 서비스 무역흑자는 2,437억 달러(16억 달러↓) 기록
 - * 2022년 무역적자는 미국 GDP의 3.7%(0.1%↑) 수준으로 증가
- 상품·서비스 수출액은 4,531억 달러(17.7%↑) 증가한 3조 97억 달러 기록, 상품·서비스 수출액은 각각 3,242억 달러, 1,289억 달러 증가
- 상품·서비스 수입액은 5,561억 달러(16.3%↑) 증가한 3조 9,578억 달러 기록, 상품·서비스 수입액은 각각 4,257억 달러, 1,305억 달러 증가

<미국 상품·서비스 12월 평균 무역수지>



[자료] 미국 상무부 수출입통계

<미국 상품·서비스 연도별 수출입 비교>



[자료] 미국 상무부 수출입통계

2. 2022년 주요 지역 및 품목별 수출입무역 동향

□ 주요 지역(국가)별 수출입 동향

- (수출) 아시아·태평양(7.7% ↑), EU(28.6% ↑), 북미(16.5% ↑), 중남미(29% ↑), 아프리카(4.8% ↑) 등 주요 교역 대상 모두 증가세를 기록
 - 주요 수출 교역국으로는 캐나다, 멕시코, 중국, 일본, 영국, 한국(8위) 등
- (수입) 아시아·태평양(10% ↑), EU(12.8% ↑), 북미(20.2% ↑), 중남미(23.5% ↑), 아프리카(11.4% ↑) 등 주요 교역 대상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
 - 주요 수입 교역국으로는 중국, 멕시코, 캐나다, 일본, 독일, 한국(7위) 등
- (중국) 상호 제재에도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는 3,829억 달러(8.3% ↑) 기록
 - 대중 수출액은 1,538억 달러, 수입액은 5,388억 달러로 집계되어,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무역적자를 기록
 - * '21년 대중 무역적자 : 3,534억 9,300만 달러
- (한국) '22년 對韓 무역적자는 438억 6,800만 달러(51.4% ↑)를 기록
 - 대한 수출액은 714억 7,000만 달러, 수입액은 1,153억 3,800만 달러 기록
 - * '21년 무역적자: 289억 7,600만 달러, 수출: 659억 4,200만 달러, 수입: 949억 1,900만 달러
 - 대한 첨단기술 무역적자는 151억 3,800만 달러로 높은 비중을 차지
 - * '21년 무역적자: 104억.35억 달러 / '22년 대한 수출(141.81억 달러), 수입(293.19억 달러)

<2022년 미국의 주요국 대상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>

(단위: 백만 달러)

| 순위 | 수출 | | 수입 | | 무역수지(적자 순)** | | |
|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| 국가명 | 금액 | 국가명 | 금액 | 국가명 | 금액 | 증감률(%) |
| 1 | 캐나다 | 356,113 | 중국 | 536,754 | 중국 | -382,917 | 8.3 |
| 2 | 멕시코 | 324,378 | 멕시코 | 454,930 | 멕시코 | -130,552 | 20.7 |
| 3 | 중국 | 153,837 | 캐나다 | 437,729 | 베트남 | -116,123 | 27.8 |
| 4 | 일본 | 80,317 | 일본 | 148,330 | 캐나다 | -81,616 | 63.1 |
| 5 | 영국 | 77,301 | 독일 | 146,608 | 독일 | -73,686 | 5.4 |
| 6 | 독일 | 72,922 | 베트남 | 127,521 | 일본 | -68,013 | 12.8 |
| 7 | 네덜란드 | 72,890 | 한국 | 115,338 | 아일랜드 | -66,066 | 10.3 |
| 8 | 한국 | 71,470 | 대만 | 91,845 | 대만 | -48,132 | 19.7 |
| 9 | 브라질 | 53,578 | 인도 | 85,671 | 한국 | -43,868 | 51.4 |
| 10 | 인도 | 47,332 | 아일랜드 | 82,034 | 태국 | -43,143 | 24.3 |

* EU, ASEAN 등 지역 및 지역협약체 값은 통계에서 제외

[자료] 미국 상무부 수출입통계(저자 가공)

□ 주요 품목(분류)별 수출입무역 동향

- 상품·서비스 수출액은 4,531억 달러(17.7% ↑) 증가한 3조 97억 달러 기록, 상품·서비스 수출액은 각각 3,242억 달러, 1,289억 달러 증가
 - (상품) 산업용품(1,909억 달러 ↑), 자본재(510억 달러 ↑), 소비재(242억 달러 ↑), 식음료(153억 달러 ↑), 자동차 부품·엔진(143억 달러 ↑)
 - (서비스) 여행(638억 달러 ↑), 기타(265억 달러 ↑), 교통(243억 달러 ↑)
- 상품·서비스 수입액은 5,561억 달러(16.3% ↑) 증가한 3조 9,578억 달러 기록, 상품·서비스 수입액은 각각 4,257억 달러, 1,305억 달러 증가
 - (상품) 산업용품(1,609억 달러 ↑), 자본재(1,035억 달러 ↑), 소비재(763억 달러 ↑), 자동차 부품·엔진(520억 달러 ↑), 식음료(261억 달러 ↑)
 - (서비스) 여행(565억 달러 ↑), 교통(491억 달러 ↑)

<2022년 미국의 주요 품목별(Trade in Goods by Principal End-Use Category) 수출입통계>

(단위: 백만 달러)

| 연번 | 품목 분류 | 수출 | | 수입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| | 금액 | 증감률(%) | 금액 | 증감률(%) |
| 1 | 식품·사료·음료 (Foods, Feeds, Beverages) | 180,034 | 9.3 | 208,258 | 14.3 |
| 2 | 산업용품 (Industrial Supplies) | 827,750 | 30.0 | 810,719 | 24.8 |
| 3 | 자본재 (Capital Goods) | 571,627 | 9.8 | 864,669 | 13.6 |
| 4 | 자동차 (Automotive Vehicles) | 158,354 | 9.9 | 399,078 | 15.0 |
| 5 | 소비재 (Consumer Goods) | 246,421 | 10.9 | 842,599 | 10.0 |
| 6 | 기타 (Other Goods) | 80,600 | 22.5 | 121,358 | -2.6 |
| 7 | 합계 (Total Census Basis) | 2,064,787 | 18.4 | 3,246,681 | 14.9 |

* 금액(Census Basis) 기준

[자료] 미국 상무부 수출입통계(저자 가공)

3. 현지 반응 및 평가

- '22년 범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러·우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무역적자가 심화한 것으로 평가
 -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소비자들이 강달러 기조 속 수입품 소비를 늘린 것도 무역적자 증대 요인으로 언급
- 서비스 무역 증가에 팬데믹 경제 영향 탈출 기대
 - E&Y 그레고리 다코(Gregory Daco) 수석 이코노미스트, “무역 추세에 팬데믹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상거래가 정상화되고 있음이 나타난다”
- '18년부터 지속한 대중 제재에도 불구하고, 대중 상품 수입은 소폭 감소
 - (폴리티코) 이번 대중 무역적자에 대해 “경제 분리 노력에도 불구하고, 미국과 중국이 상업적으로 얼마나 얽혀 있는지 보여준다”라고 언급하며, 양국 간 경제 디커플링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
 - (BCG) 보스턴컨설팅그룹은 미·중 간 무역이 '31년에는 약 630억 달러 (10%↓) 감소할 것으로 전망

* 자료 : BEA 보도자료(27), 월스트리트저널(27), 폴리티코(27), 뉴욕타임스(27) 등

□ **(경제 · 통상) 바이든, 2023년 의회 연두교서 발표**

- (개요)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현지시간 27일 연두교서 발표 예정
 -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두교서 발표를 통해 2년간의 경제 치적을 강조하고 미래의 국정 청사진을 공개할 전망
- (주요안건)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속 경제적 안정과 치적 강조에 초점
 - (경제) 팬데믹에서 회복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안정과 미국 시민을 위한 비용 절감 성과 강조 전망
 - * 2022년 하반기 기준 3개월 코어 인플레이션은 연간 기준 8%에서 3%로 감소
 - ** 실업률 50년 최저치 수준 및 80만 개 제조업 포함 1,200만 일자리 창출 등
 - *** 처방약 비용, 건강 보험료 및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보호
 - (산업) 인프라,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제조업 붐 조성
 - * 2년간 반도체, 에너지, 전기차, 배터리 및 첨단 부문 등 200개 이상 기업, 7,000억 달러
 - (무역·인프라) 인프라 사업 내 미국산 구매강화규정 강화 전망

※ **미국산 구매강화 규정 지침 발표 전망**

- 기존 Buy America 법안은 철과 강철, 특정 연방 인프라 사업에만 적용되고 있어 외국산 전자재가 연방 인프라 사업에 쓰일 수 있는 상황
 - 신규 지침을 통해 구리, 알루미늄, 광섬유케이블, 목재, 석고판까지 다양한 전자재로 품목을 확대하고 제조품 가치 비중 요건을 인상할 전망
 - 전미종합건설사협회 등 업계 내에서는 미국산구매요건 강화 규정에 불확실성이 많으며 국산 전자재의 제조요건 명확화 등 여러 문제를 제기 중
-
- (재정) 1조 7000억 달러 이상의 적자 감축 강조, 억만장자 최저세 비준 요청
 - (보건) 미국인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방약 비용 감소, 메디케어 및 ACA (Affordable Care Act) 강화를 위한 조치 등

* 자료 : 백악관 보도자료(2.6, 2.7), 인사이드트레이드(2.7)

□ (대리제재) 재무부,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 지침 공개

- (개요)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제국(OFAC)은 G7, EU, 호주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 및 유류품 가격 상한제* 지침 공개(2.3)
 - * EU가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\$60 상한선을 적용(12.5)한 이후 미국, G7, EU, 호주가 동참한 포괄적 상한선
 - 2.5부터 프리미엄 등급 러시아산 원유에는 배럴당 100달러, 일반 등유·나프타 등의 할인 제품에는 45달러의 상한선 적용
- (상세) 지침서는 동맹국이 결정한 원유 가격 상한선의 기준, 개시와 종료 시점, 원유 거래에 포함되는 서비스 제재에 대한 설명을 포함
 - (1) 가격 상한선 : 러시아산 원유 및 정제유 등 석유 제품(HS코드 2709, 2710)에는 배럴당 100달러 상한선, 70%의 원유량을 포함한 제품에는 배럴당 45달러 상한선 적용
 - (2) 개시·종료 : 가격 상한선은 러시아산 원유의 해상 거래*가 이뤄지는 시점부터 적용되며, 다른 국가에 최초로 판매되는 시점에 종료
 - * 러시아산 원유를 타국에서 재가공 후 육상으로 판매할 경우, 상한선 미적용
 - (3) 관련 서비스 제재 : 제3자를 통한 러시아산 원유 구매와 판매, 결제 시 일어나는 모든 금융거래, 배송을 위한 선박 지원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제재를 언급

* 자료 : 재무부 보도자료(2.3), 재무부 상한선 지침(2.3), 로이터(2.3)

□ [친환경] 에너지부, 탄소포집 기술을 위한 투자 발표

- (개요) 에너지부는 탄소배출 감소 및 포집 기술의 발전과 추가적인 경제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는 1억 1,300만 달러 지원 계획을 발표(1.30)
- (상세) 이번 지원은 탄소포집 기술 개발과 탄소 저장소 건설을 위한 두 개의 어워드로 구성되었으며, 총 33개의 프로젝트를 선정
 - ① '탄소 관리 어워드'(Carbon Management Awards) : 대기 중 탄소 포집과 화학 물질 가공 기술 및 상업적 실행 가능성이 큰 22개의 프로젝트에 3,800만 달러 지원
 - ② '탄소 SAFE 어워드'(Carbon Storage Assurance Facility Enterprise Award) : 5천만 톤 이상의 탄소 저장소 건설을 위한 지질학적 조사 및 해상 저장 시설 건설 프로젝트 11개에 9,800만 달러 배정
- (반응) 잦아지는 기후변화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탄소포집 기술 개발 필요
 -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“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가 미국 내 가뭄·홍수 위협을 증가시켰다”라고 우려
 - 아울러 탄소포집 기술 발전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,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

* 자료 : 에너지부 보도자료(1.30)

□ [북한동향] UN 안보리, 북한의 암호화폐 공격이 더 활발해졌다 밝혀

- (개요) 로이터 통신, '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으로 역대 최대인 약 6억 3,000만 달러 규모 가상자산을 가로챘다고 보도(2.6)
 - 대북 경제제재를 우회한 외화벌이 및 북한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사이버 공격이 활용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
- (상세) 로이터가 입수한 UN 안보리 미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암호화폐와 항공·우주·방산 업계 위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
 - 북한은 경제제재를 우회하는 외화벌이 수단으로 라자루스 그룹 등 정찰총국 산하 해커 집단을 활용, 피싱·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 감행
 - 특히 라자루스 그룹은 암호화폐 기반 온라인 게임 '엑시 인피니티'를 해킹, 역대 최대 규모인 미화 6억 1,500만 달러 상당 탈취('22.3월)
 - * 아울러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홀리고스트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랜섬웨어 유포
 - UN 보고서는 북한의 정교해진 공격 기법으로 탈취된 자산에 대한 당국의 추적이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
 - '19년 UN 대북 제재 보고서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획득한 20억 달러가 무기 개발 프로그램 예산에 사용됐다고 분석
- (대응) 미국은 사이버 범죄 전문 부서 신설, 카운터 해킹, 해킹그룹 및 조력자들에 대한 제재·처벌 강화 등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
 - 미 정부는 자금 세탁을 도운 가상화폐 믹서 기업 '블렌더'와 '토네이도 캐시' 등에 자산동결 등 제재를 가한 바 있음.
 - 북한 라자루스 그룹 자산동결을 포함한 미국 주도의 UN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·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부결('22.5월)
- (참고) 동 보고서는 2월 말~3월 초 경 공개 예정

* 자료 : 로이터 통신(2.6) 등

Top Headlines

| 언론사 | 주요 보도내역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Wall Street Journal | <p>Powell Says Hiring Surge Shows Why Inflation Fight Could Be Difficult (파월, 고용의 증가는 장기화할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반증)</p> <p>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노동시장의 강세가 왜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는지 입증하는 사례라고 발언</p> |
| The Washington Post | <p>New images of the Chinese balloon recovery show the closest glimpse yet (중국 정찰 풍선 잔해 회수 작전 실시간 사진 속보)</p> <p>미군은 토요일에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 잔해의 상당 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여... 해군이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머틀 비치에서 작전 중.</p> |
| New York Times | <p>Biden to Promote His Path of Taxing the Rich and Aiding the Needy (바이든, 부자증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자신의 치적 강조 예정)</p> <p>재선 출마 공식선언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적 평등에 대한 노력과 메디케이드 및 국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강조할 예정</p> |
| CNN | <p>US Navy releases photos of Chinese spy balloon recovery effort (미 해군, 중국 정찰 풍선 잔해 현장 사진 공개)</p> <p>미 해군은 지난 토요일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 잔해 회수 현장 사진을 공개. 군 관계자, 200피트 크기의 풍선이 몇천 파운드의 장비를 싣고 있었다고 발표</p> |
| USA Today | <p>Zoom to layoff 1,300 of employees, CEO slashes salary (줌, 1,300명 해고 및 최고경영자 연봉 삭감 예정)</p> <p>줌 대표 에릭 유안, 화요일에 전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직원 해고 계획 밝혀... 전 직원의 15% 규모로 발표 후 주가 7% 상승</p> |

* 미국 동부시간 2월 7일 17시 기준

Notice

주요 경제 · 통상 일정

| | |
|---------|--|
| 2.7(화) | 12월 무역 적자 (International trade deficit) |
| 2.8(수) | 12월 도매재고 (Wholesale inventories) |
| 2.10(금) | 미시간대 소비지심리지수 (UMich. consumer sentiment index) |
| 2.10(금) | 1월 연방예산수지 (Federal budget balance) |

□ **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**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☞헤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☜](#))

| 발간번호 | 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 | 발간시기 |
|---------|--|----------|
| US23-02 | 미국 컨테이너 해운 현황 및 2023년 글로벌 동향 전망 | 2023.01월 |
| US23-01 | 현지 기관이 전망하는 美 118대 의회 중대 정책의제 | 2023.01월 |
| US22-45 | 美 경제 현황과 주요 기관 2023년 전망에 따른 시사점 | 2022.12월 |
| US22-44 | 제3차 미-유럽 무역기술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| 2022.12월 |
| US22-43 | 미·중 경제안보 심의위원회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| 2022.12월 |
| US22-42 | 美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1주년 실적 평가 및 시사점 | 2022.12월 |
| US22-41 | G20 美·中 정상회담 이후 아·태 이슈에 대한 반응 및 전망 | 2022.12월 |
| US22-40 | 《필수 에너지·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》 주요 내용 | 2022.11월 |

◆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**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 : [☞헤드림 심층보고서☜](#))

| 발간번호 | 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 | 발간시기 |
|-----------|---|----------|
| US22-기 획7 |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 | 2023.01월 |
| US22-기 획6 |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 | 2022.12월 |
| US22-기 획5 |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| 2022.12월 |
| US22-기 획4 |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| 2022.11월 |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☞유튜브 KOTRA TV☜](#))

| 인터뷰번호 | 제목 | 바로가기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코인시-7 (2022.12.26.) |  |  |
| 코인시-6 (2022.12.26.) |  |  |